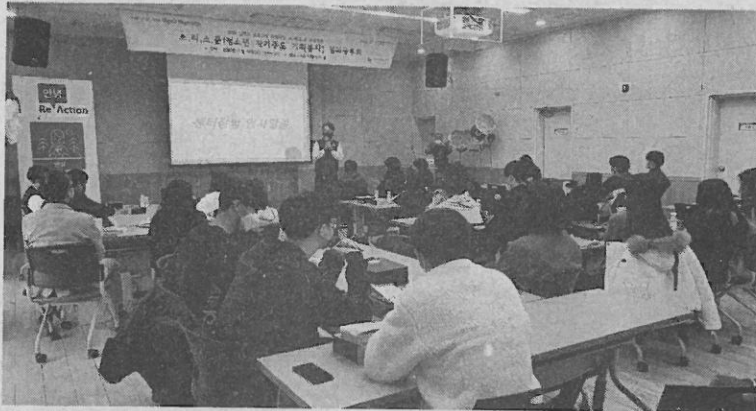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소리소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우리는 봉사도 자기주도적으로 한다!” 6개월간 청소년 247명 지역서 다양한 활동 펼쳐



양천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월 14일 센터에서 '2020 자기주도적 청소년 기획봉사활동 소리소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 (사진)

2016년 시작돼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소리소문 프로젝트는 '소중한 우리의 소중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구성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개 팀 59명의 학생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서도 지난 6개월간 247명의 학생이 48회에 걸쳐 환경, 교육, 역사, 지역사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센터 관계자는 “성과공유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저마다 고생했던 사연, 힘들었던 사연, 뿌듯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며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학생들은 본인들 힘으로, 스스로 기획한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해 즐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작지만 사회 문제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뿌듯했고, 지역사회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소리소문 프로젝트를 통해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했다.

함형호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청소년 자기주도 기획봉사인 소리소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췄지만, 소리소문 프로젝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천구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소리소문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이야기, 반응이 뜨거웠던 소리소문 홍보영상 등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희 기자